가정예배

01

인생의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

성경 요한복음 13:1-11

신 67 쉐마 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김의 본이 되는 하루 되세요.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기쁨으로 섬기는 가정이 되도록 해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찬양

1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은혜의 찬양 383장)

1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2 누가 주를 따라 (찬송가 459장)

2

1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2 세상 영광 위해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 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3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말씀 읽기 요한복음 13:1-11

1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3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4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6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8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9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10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11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본문 배경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다가왔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자세를 보여 주십니다. 유대인의 풍습에 따르면, 타인의 발을 씻겨 주는 일은 가장 낮은 종의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둘러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겸손과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함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의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지를 논하며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겸손의 자세로 섬기는 사람이 큰 자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행위는 곧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죄인들의 죄를 씻어 주실 것을 예고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누린 자는 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0절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용서를 받았으며 매일의 죄를 회개하는 일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이라는 선물을 기억하고, 우리를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 관찰

1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셨나요? (1절)

답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해설 예수님이 죽음을 눈앞에 둔 시점에 하신 일은 "세상이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1절). 여기서 "끝까지"라고 번역된 단어는 '끝이 없이', '영원토록'이라는 뜻도 가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며, 사람을 가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인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2절). 그럼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할 대상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인생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 역시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2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다가 중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4-5절)

답 제자들을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해설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을 섬김의 모습을 통해 제자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식사하는 도중,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자각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3-5절). 유대 풍습에서 이런 일은 종이나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신적 권위를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겸손한 자세로 서로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성도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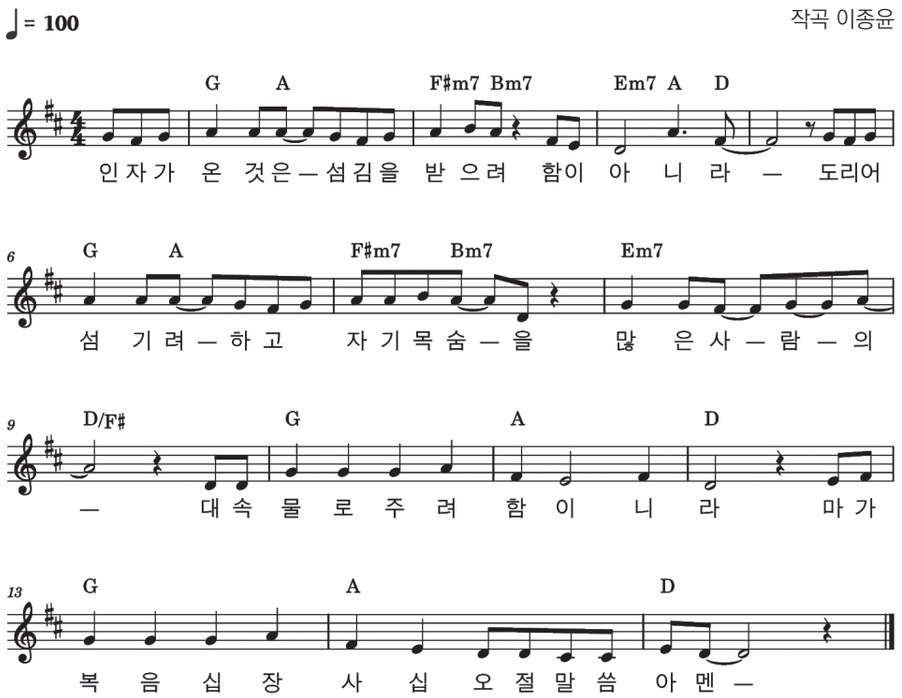
1 나에게 남은 날이 한 달이라면 무엇을 하고 싶을지 그 내용을 가족과 나눠 보세요.

2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불편한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 사람들을 사랑할 계획을 세워 보세요.

말씀 암송

6-1 인자가온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



가정예배 기도문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